

/리뷰 2016/

① 촛불혁명

2016년은 대한민국 민주 국민의 역량을 국내외에 보여준 해였다. '최순실 국정 농단'으로 타오르기 시작한 분노의 민심은 '촛불'로 승화돼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을 이끌어 냈다. 한해 동안의 굵직한 일들을 되돌아 본다.

지난 10월 29일 이후 매주 토요일이면 전국을 밝히는 '촛불'은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이끄는 동력으로 거듭나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검은 '민낯'을 지시한 국민들이 도로와 광장에서 정당하고 평화로운 요구를

822만 피플파워 민주·평화 밝혔다

'최순실 국정 농단' 분노의 민심 전국 곳곳 광장으로

'박근혜 탄핵' 이끌고 부패 정치·사회 모순 뒤집어

통해 민주주의를 진보시켜 가고 있는 것이다.

한꺼번에 100만명을 훌쩍 넘는 대규모 인원이 모여 합리적이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시위문화에 외신의 찬사도 쏟아졌다. 일상에 쫓겨 정치에 무관심했던 시민들의 참여는 '그들만의 리그'로 이익집단과 정당에 의해 주물러

지던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을 추동하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다.

촛불집회는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전혀 다른 방식의 문화를 만들어냈다.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원인을 찾아 대책을 요구하며 '집단 이상'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는 직장인과 대학생은 물론, 주부와

어린 아이까지 광장으로 몰려나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됐다. 17일 8차 촛불집회까지 822만명의 국민이, 광주에서만 40만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매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집회에 참여한 김미애(52·여)씨는 "그동안 참여할 수 없어 외면하면서 숨죽이며 살았다"며 "이번 집회에 참여하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갖게 됐고 더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군부독재와 압축성장, 경제 위기와 중산층 붕괴, 빈부 양극화와 수도권 일극화 등의 과정에서

억눌려 있던 사회 모순과 왜곡이 박근혜 대통령 집권 이후 심화됐다는 점도 외면할 수 없다. 그동안 '헬조선'이라는 표현으로 대표될 만큼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었던 벽 앞에서 좌절했던 10·20대, 육아 부담,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고통받던 30·40대, 조기명퇴나 실직한 50대, 후대를 걱정하는 노년까지 한결같이 촛불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전반적인 사회병리 현상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심화시키는 정부의 무능은 대중의 발길을 광장으로 재촉하고 있다.

여전히 의문점만 더해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이해 못할 대처, 최순실 등의 국정 개입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정부부처의 한심한 운영 체계,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에서의 관련 교수들의 거짓말과 변명 등 국가 최고기관과 최고 엘리트들의 무능과 부도덕 역시 함성을 드높이게 한다.

촛불은 한파 속에서도 더 강하게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 이후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의 책임 회피, 청문회 증인들의 '모르쇠' 일관에 따라 또다시 분출되는 분노의 민심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촉구로 옮겨 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더불어 촛불이 사회 모순에 대한 해결 주문을 넘어 더 나은 세상으로 이어주는 징검다리 가 돼 '혁명'으로 이끌지 주목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탄핵 빨리 인용하라” 헌재로 향한 촛불

광주 3만 등 전국 77만명 참여

황교안 대행 사퇴 목소리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의 원동력인 '촛불'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조기 인용 요구로 옮겨 불고 있다.

〈관련기사 2·3·4·5·6면〉

지난 16일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탄핵 이유가 없다”고 밝힌 것을 규탄하며 박 대통령이 즉각 퇴진해야 하고, 황 권한대행 역시 헌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재가 신속히 심리를 진행해 하루빨리 탄핵심판을 인용하라는 요구도 강했다.

지난 17일 광주·전남을 비롯해 서울 광화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심에서는 벌어진 제8차 주말 촛불시국대회에서는 헌재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동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집회 주최 측은 이날 광화문 66만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77만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날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8차 광주시국촛불대회'에는 3만명의 시민이 참여해 박 대통령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 앞서 만민공동회와 헌법재판관에 연하장 보내기, 국정교과서 폐기 서명운동 등이 사전행사로 열렸다. 악귀(재앙)를 쫓는다는 상상의 동물 해태상도 등장했다.

광주 집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



헌법재판관들에 연하장 보내기

1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헌법재판관들에게 연하장을 쓰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관에게 연하장 보내기운동'에는 모두 552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규전 민주당 대표, 천정배 전 국민의당 대표 등 대선 후보군이 대거 참석해 유세장을 보는 듯했다. 전남 22개 시군 중 16곳에서도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 등 진보진영 15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이날 오후 5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의 날' 집회를 열었다.

퇴진행동은 이날 집회에서 헌재에 신속한 탄핵안 처리를 요구하고, 황 권한대행 역시 박 대통령과 '공범'이라며 그의 퇴진도 요구했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100m 앞까지 행진

하는 동시에 헌재와 국무총리공관 100m 앞까지 행진했다.

박근혜 퇴진 대전 운동본부도 서구 타임월드 앞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주최 측 추산 1만여명(경찰 추산 1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열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연합뉴스

전남대 총장 공백 불가피

20대 총장 후보자 추천...대통령 임명 절차 연기

지병문 총장 임기 내일 만료

광주교대도 총장 공석 사태

전남대가 총장 공백사태에 직면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국립대 총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고려하면 지병문 현 총장의 임기 만료(20일) 전까지 신임 총장 임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18일 교육부와 전남대 등에 따르면 전남대는 최근 20대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관련 절차가 늦어지면서 신임 총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국립대 총장의 경우 교육부가 대학측이 추천한 총장 후보에 대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임명하는 방식이다.

현 총장의 임기 만료(20일)와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총장 공석 사태는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황교안 권한대행체제가 들어서면서 관련 절차가 순연되는 바람에 전남대 후임 총장에 대한 임용도 미뤄져 총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해졌다.

전남대는 제 20대 총장인용예비후보 자들에 대한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던 정병석(58·법학전문대학원) 후보와 2순위인 정성창(59·경영학부)

후보를 무순으로 교육부에 추천한 상태다.

광주교대도 교육부가 총장 임기 만료(10월 22일)를 불과 나올 앞두고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해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갑작스런 '퇴짜'를 놓으면서 수장(首長)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전일빌딩 5·18 기총조사

국과수, 내달 10일 밝힌다▶6면



한국 봅슬레이 쾌속 질주

메달 0.09초 남았다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50-YEAR
Ginseng Research

Sulwhasoo

**피부 자생력과 방어력을 키우는 인삼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다**

설화수 자음생크림

천천히 변화를 겪는 피부는 어느 순간 크게 힘을 잃습니다
 피부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전하는 설화수 자음생크림
 인삼 꽃의 응축된 힘으로 방어력을 강화해 피부 손상 예방에 도움을 주고 인삼 뿌리의 강력한 효능 성분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높여줍니다. 더욱 강화된 인삼결정체로 스스로 살아나는 피부활력을 누리세요

· 1966년 설화수 브랜드의 모태인 ABC인삼크림이 탄생되었으며, 이후로 50년간 인삼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유명백화점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료 요금부담)